

Chapter 1

연세대 실전개념 정리

Step 1 연세대 논술 특징 정리	15p
Step 2 시험장 루틴 정리	17p
Step 3 실전에서 쓰기 좋은 입장 구조	19p
Step 4 실전에서 쓰기 좋은 답안 구조	21p

STEP
1

연세대 논술 특징 정리

1 연세대 논술 성격 분류표

문항의 구조		
정형화된 문항 구조	다양화된 문항 구조	
답안의 구조		
정형화된 답안 구조	다양화된 답안 구조	
문항의 연결성		
문항 간 독립	문항 간 연결	
추론의 방향성		
단선적, 평면적 추론	양가적, 입체적 추론	
핵심 평가 요소		
표현력, 문장력 중시	분석력, 추론력 중시	주장력, 문제해결력 중시
출제 교과 범위		
국어, 사회탐구	영어	수학
시험 시간		
짧은 호흡 (100분 미만)	긴 호흡 (100분 이상)	
답안 분량		
단문 (800자 미만)	장문 (800자 이상)	

 **TMI** | 다양한 대학별 유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별 유형을 원활히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별 인문논술 시험의 '성격 분류표'를 만들었다. 다른 학교의 성격 분류표가 궁금하다면, [Chapter 3: 부록]을 참고하도록 하자.

| 문제 유형 |

① [문제 1-1] : 주장을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평가 (600자 내외, 25점)

주로 독해력과 분석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된다.

하나의 주제로 제시문이 다양하게 엮이는 지점과 대립되는 주장 사이 다면적 요소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주로 영어 제시문이 여기에 포함된다.

② [문제 1-2] : 주장 간의 비교&평가 (600자 내외, 25점)

주로 독해력과 분석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된다.

추가 제시문을 통해 [문제 1-1]에서 사용된 제시문을 새로운 관점에서 독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③ [문제 2-1] : 실험, 도표 자료 분석 (600자 내외, 25점)

주로 추론력과 논증력, 자료 해석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된다.

[문제 1]에서의 이론적인 접근을, 현실에 적용하여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실과 이론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주로 출제된다.

④ [문제 2-2] : 수리 문항 및 결과 해석 (분량 제한 없음, 25점)

주로 추론력과 논증력, 수리-인문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된다.

제시문과 수리 문항을 연관지어 수리적 결과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양가적 사고가 주로 반영된다.

| 양가적 사고와 다면사고형 논술 |

연세대학교의 논술은 '다면사고형 논술'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시문과 답안에서 단순 이항대립이 아닌 **양가적인 분석**이 중시되어 출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시문 (가)가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제시문 (나)가 '결정론'을 주장한다면, 이는 단순 이항대립 구도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연세대의 경우는, 보통 제시문 (가)가 '자유의지'를 주장한다면, 제시문 (나)는 '자유의지를 부분 인정하는 결정론'을 출제하고, 제시문 (라)에서 '자유의지, 결정론 모두와 일부 부합 및 일부 상충하는 도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양가적인 지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답안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

| 영어와 수리 문항 출제 |

제시문 넷 중 하나는 반드시 **영어 문항**으로 출제된다. 비문학, 문학 등 다양한 종류에서 출제된다.

수능 영어 기준 최소 2등급 정도의 능력을 요구한다.

수리 문항은 [2-2]에 **고정**으로 출제되며, 주로 수I, 수II, 확률과 통계 범위에서 단원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출제된다.

수능 수학 기준 최소 3~4등급 정도의 능력을 요구한다.

STEP 2

시험장 루틴 정리

지금부터 본격적인 실전 대비를 시작하자.

시험 시작 종이 올렸다고 생각해 보자. 무엇부터 해야 할까?

종이 올리자마자 바로 답안부터 쓰는 건 불가능하다.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제시문을 독해하고, 문제를 읽고, 핵심 주제를 찾고... 해야 할 것이 매우 많다.

또 제시문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읽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막히기도 하는 등, 실전에서는 일어날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전에서 어떤 상황에도 곳곳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일관된 방법론, 즉 ‘시험장 루틴’이 필요하다.

필자가 제시하는 다음 시험장 루틴을 훈련하여,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

| 시험장 루틴 정리 |

PHASE 1 문제 스캔 및 핵심 주제어 체크

PHASE 2 발문의 구체적 분석

PHASE 3 제시문의 유기적 독해

| PHASE 1 : 문제 스캔 및 핵심 주제어 체크 |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문제를 풀면, 답안을 원활히 작성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제일 먼저 문제를 스캔하며 핵심 주제어를 찾아야 한다.

처음부터 긴 제시문을 하나하나 정독하면, 숨어 있는 주제어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주제어가 들어 있을 법한 곳을 먼저 공략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스캔하자.

연세대 논술에서는 문제의 발문, 영어 제시문 각주, 도표의 변인, 수리 문항 등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키워드를 통해 문제의 핵심 주제어를 찾을 수 있다.

| PHASE 2 : 발문의 구체적 분석 |

주제어를 찾고 바로 제시문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논술은 ‘제시문 잘 읽기 시험’이 아니라 ‘답 잘 쓰기 시험’이다. 즉,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답’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곳, ‘발문’이다. ‘발문’은 제시문들의 관계를 규정하고, 우리가 써야 할 글의 유형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발문을 먼저 분석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고, 문제의 구성과 출제자의 의도를 더욱 자세히 할 수 있다.

발문을 읽으며 찾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제시문의 역할(기준 제시문, 적용 제시문)
- ② 작성해야 할 글의 유형 (설명, 분석, 비교, 평가, 해석, 비판 등)
- ③ 관계 지시어 (각각, 통합하여, 참고하여, 연결지어 등)

| PHASE 3 : 제시문의 유기적 독해 |

핵심 주제어를 잡고 발문을 분석하였으니, 본격적으로 제시문을 독해하며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자.

연세대학교의 문제는 **제시문 간 유기적 구성**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므로, 제시문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문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독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문을 독해할 때, 발문을 읽으며 찾은 '**제시문의 역할**'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읽어야 한다.

또한, 제시문을 한 번만 읽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반복해서 읽으며 제시문 속 내용을 물고 늘어진다**고 생각해 보자.

이때 무지성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말고, **각 반복에서 목적을 가지고** 문제 풀이의 단서를 효과적으로 얻어 보자.

이렇게 제시문을 독해하고 나면, 보다 효과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시험장 문제 풀이 루틴으로 문제를 일관되게 풀어 나갔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틀을 확보한 후에는, 이를 응용하여 시험장의 다양한 변수들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시문을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답안 작성이 막힌다면, PHASE 1의 주제어, PHASE 2의 발문 요구 사항 중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해결하는 것이다.

‘시험장 루틴’의 자세한 적용 과정은, [Chapter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EP
3

실전에서 쓰기 좋은 입장 구조

앞서 연세대는 단순 이항대립적인 분석보다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지향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양가적인 제시문 구조는 충분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실전에서 찾기 매우 어렵다.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몇 가지 구조를 미리 알아두면, 시험장에서 양가적 구조가 출제되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STEP에서는 미리 알아두면 실전에서 활용하기 좋은 대표적인 양가적 입장 구조를 수록하였다.

| 두 가지 입장 구조 |

A ↔ a+B 구조	
한 제시문의 가지는 입장을 다른 제시문이 일부 동의한 채로 대립	
제시문 (가)	제시문 (나)
Ex) 자유의지	Ex) 자유의지를 부분 인정하는 결정론

A+C ↔ B+C 구조	
두 제시문이 대립하지만 공통적 범주가 존재	
제시문 (가)	제시문 (나)
Ex) 국가와 민족의 소속을 인정하는 세계시민주의	Ex) 국가와 민족의 소속을 부인하는 세계시민주의

| 세 가지 입장 구조 |

이중 대립 구조		
세 가지 제시문이 두 가지 범주로 크게 대립하고, 같은 범주로 묶인 두 제시문이 세부적으로 다시 대립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
Ex) 작문성 중시	Ex) 구술성 중시, 2차 구술성 부정	Ex) 구술성 중시, 2차 구술성 긍정

대립 + 조화 구조		
두 가지 제시문은 대립하고, 남은 한 가지 제시문은 두 입장을 조화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
Ex) 자유의지	Ex) 결정론	Ex) 양립론(자유의지 + 결정론)

이러한 핵심 구조들은, 시험장에서 다양하게 응용되어 출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 $A \leftrightarrow a+B$ ’ 구조가 심화되면, 두 제시문이 서로 반대 쪽의 입장을 일부 동의한 채로 대립하는 ‘ $A+b \leftrightarrow a+B$ ’ 구조가 출제될 수도 있다.

또한 ‘대비 조화 구조’와 ‘ $A+C \leftrightarrow B+C$ ’가 합쳐져, 두 가지 제시문이 대립하는 와중에 공통 범주가 존재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나머지 한 입장이 조화하는 구조가 출제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연세대에서 빈출되는 양가적 분석 구조를 알아 둔다면, 시험장에서 제시문을 독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적 내용을 잘 짚고, 더욱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STEP
4

실전에서 쓰기 좋은 답안 구조

실전에서 우리는 낯선 제시문 독해에 시간을 쓰고, 답안 작성 시간은 최대한 아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주 출제되는 답안 구조를 미리 익혀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요약 설명 답안 구조 |

ANSWER

(다)의 [주제]에 대한 [상황]은, (가)의 [키워드]와 (나)의 [키워드]를 통해 설명된다.

Ex) (다)의 이타적 행동에 대한 화자의 연설은, (가)의 합리론과 (나)의 공리주의를 통해 설명된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다)의 화자의 연설은, (가)와 (나)를 통해 설명된다.’ 라고 쓰면 그저 **의미 없는 요약**이 되어 버린다. 반드시 각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를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험장 루틴] PHASE 1에서 미리 관련 주제어의 후보들을 찾아 두는 것이다.

| 평가적 답안 구조 |

ANSWER

(다)의 [키워드]에 따르면, (가)의 [키워드]는 [연결 설명] 이다.
이는 [논증 설명]하는 (다)의 관점에서 [평가] 될 것이다.

Ex) (다)의 양립론에 따르면, (가)의 선의지는 자유의지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자유의지를 일부 인정하는 (다)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키워드를 잘 삽입해 주고, [연결 설명]에서는 대상 제시문의 내용을, [논증 설명]에서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기준 제시문의 내용을 적어주면 된다.

두 제시문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각 제시문의 내용을 넣은 덕분에, 구체성과 연결성 면에서 좋은 구조이다.

| 비교 답안 구조 |

ANSWER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공통점]을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 기준]에 있어 (가)는 [차이점]을 지지하는 반면, (나)는 [차이점]을 강조한다.

Ex)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도덕 행위에는 보편성이 작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보편성 작용 과정에서 이성의 개입 여부에 있어 (가)는 이를 긍정하는 반면, (나)는 이성에 대비되는 감정을 강조한다.

‘비교’ 답안을 쓸 때, **명확한 비교 지점**을 가지고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서술해주어야 한다.

| 양가적 분석 답안 구조 |

ANSWER

[결과]에서 [세부 내용]은 (가)의 [주장]과 부합하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결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가)가 제시하는 [주장]과는 상충한다.

Ex)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공동체 활동 참여 인구가 최대 55%로 제한된다는 점은 (나)의 유전자 한계론과 부합한다. 그러나 정부가 역량을 발휘함에 따라 공동체 활동 참여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유전적 본성을 뛰어넘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나)가 제시하는 유전적 기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특히 이런 양가적 분석 구조는, 마지막 문항인 [문제 2-2]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조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술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촉박하기에, [문제 2-2] 해석 단계에서 단선적인 설명만을 하고 마무리한다. 하지만 양가적 분석 구조를 미리 외워둔다면 [세부 내용]을 찾는 데 집중한 후 양가적 분석을 빠르게 마쳐 답안을 마무리하여, **시간 압박 속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된 답안**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양가적 주장을 제시할 때는 서술어 사용에 주의할 부분이 있다. ‘한 쪽이 완전히 틀리거나 맞지 않음’을 전제로 설명하기에, ‘옳지 않다’, ‘틀렸다’ 등의 표현보다는, ‘불일치한다’, ‘설명되지 않는다’, ‘상충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등 중립적이고 온화한 표현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